

국역성서의 헬라어 분사구문 처리에 관한 소고

-『새번역』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유은걸*

1. 서론

번역은 두 가지 언어의 어의를 병렬시키는 단순 작업이 아니다. 각 언어에는 사용자들의 독특한 논리와 세계관이 담겨 있고 번역자는 낯선 ‘의미 공간’ 자체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 난점은 원문의 문법적 구조가 번역문의 언어에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 더욱 가중된다. 바로 우리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헬라어의 분사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는 성서번역가를 늘 고민하게 만든다. 헬라어에서 특별히 발달한 분사구문의 처리 여부는 그 자체로 많은 주석적 토론거리를 양산한다고 볼 때, 이것을 우리말 번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본 소론은 헬라어의 분사구문이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새번역』 성서의 히브리서) 번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²⁾

2. 헬라어 분사의 상응 관계 표현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신약학.

- 1) 우리가 히브리서를 주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이 문서의 저자가 분사구문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에 있다. 히브리서 전체에는 분사가 308번 등장하는데, 똑같이 13장으로 구성된 고린도후서에는 분사가 188번 사용될 뿐이다. 비단 분사가 양적으로 많이 발견된다는 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명사/형용사적으로 쓰인 분사가 번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는데 반해, 부사적으로 쓰인 용례는 주석과 번역 작업시 많은 토론거리를 남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3장을 보라.
- 2) 성서번역본을 비판하는 구실 중 흔히 제시되는 것은 ‘원문 그대로 옮기지 않고 번역자의 해석을 함부로 가미했다’는 것이다. 『표준새번역』(이하 『표준』) 및 『새번역』에 대한 각계의 반응도 이를 예증한다. 이에 대해서 다음을 참조하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부 추진위원회 간, 『소위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의 실체』(서울: 총회신학부, 1993); 김중은, “표준새번역 성경 구약 번역에 관한 비평적 고찰”, 『구약의 말씀과 현실』(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416-441.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두란노, 1996), 131-151을 보라.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말에는 분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실이 안겨주는 번역상의 난점은 무엇인가? 헬라어는 시제가 명확하며 성(性), 수(數)가 정확히 구분되므로 ‘상응관계’가 명확하다. 문제는 헬라어 분사가 형용사, 명사, 동사로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³⁾ 동사에는 없는 성과 격(格)이 표현되며 형용사나 명사에는 없던 시상⁴⁾이 표시된다는 점이다. 분사가 다른 문장성분과 상응관계를 이룰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결국 우리는 분사가 가진 다양한 성격과 문장 안에서 갖는 기능, 그리고 다른 문장성분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옳은’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은 원문을 ‘옳게’ 이해했느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우리말로 표현했는지도 따지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말은 단수 복수 개념이 불분명하고, 시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속출한다. 더욱이 대명사를 사용할 경우 도리어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어머니와 선생님께서 내 성적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그분은) 특히 수학성적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셨다.” 물론 이것은 좋은 문장이 아니다. 주어를 넣었는지 뺐는지에 상관없이 누가 불만을 품었는지 불분명하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주어 없는 문장을 많이 사용하는데, 문맥을 통해 그 주체를 짐작해야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영어였다면 남녀 구별이 분명한 대명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⁵⁾ 만일 어머니와 선생님 두 분이 모두 불만이었다면 단수, 복수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원문의 상응 관계가 표현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히브리서 6:19이다. 원문을 보면 ἡν ὡς ἄγκυραν ἔχομεν τῆς ψυχῆς ἀσφαλῆ τε καὶ βεβαίαν καὶ εἰσερχομένην εἰς τὸ ἐσώτερον τοῦ καταπετάσματος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역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역개정』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새번역』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3) 분사의 성격에 대해서 H. W. Smyth,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454 이하를 참조하라. 이는 영어 등 서양어에서도 충분히 표현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4) 헬라어 분사에 이른바 ‘시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아래 4장을 참조하라.

5)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녀’는 사실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며, 실제로 어머니를 ‘그녀’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적지 않은 경우 대명사는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또 한국인은 이름이 아니라 ‘관계’(가령 ‘형’, ‘누나’)를 호칭으로 사용하는데 이 역시 서양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2인칭 호칭은 성서번역에 있어 서구에는 없는 논란거리를 양산했다. 참조,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6-122.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두 번역에 따르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다. 그러나 원문에 있는 분사 εἰσερχομένην은 앞 18절의 선행사 ἐλπίς를 가리키므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소망’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일 뿐이다(참조, 히 3:6; 4:14; 7:19).⁶⁾

히브리서 9:4도 상응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표현되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라는 『개역개정』에서 분사 ἔχουσα가 받는 3절의 대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휘장’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장막’이나 ‘지성소’ 중 어디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비해 『새번역』은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로 처리함으로써 『개역개정』보다 구체적인 번역을 제시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ἔχουσα가 꾸며주는 3절의 σκηνή를 밝혀 “그 장막 안에는”이라고 옮기는 편이 적절할 것 같다. 상응관계가 명확하다면, 수식 받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번역이야말로 헬라어와 우리말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말에는 대명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쓰일 뿐만 아니라 그조차도 문장의 내용 파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상을 다시금 거명하는 것이 차라리 명확한 번역일 수 있다.⁷⁾

이점은 분명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성서는 앞뒤 문맥 가운데 이해되는 여타 번역물과는 달리 몇 절 심지어 한 절만을 떼어 인용되는 때가 많다. 따라서 예배나 성경공부에서 사용되는 성서구절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원문에서 대명사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우리 역본이 기계적으로 이를 따를 필요도,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반면 히브리서 7:8은 우리말의 존대법 때문에 도리어 원문보다 명확한 상응관계를 표현하도록 ‘강요’받은 경우이다. 원문 καὶ ὧδε μὲν δεκάτας ἀποθνήσκοντες ἄνθρωποι λαμβάνουσιν, ἐκεῖ δὲ μαρτυρούμενος ὅτι ζῆναι 우리 번역본들은 다음

6) 이 점을 다른 언어의 역본은 정확히 표현했다. NRSV: “We have this hope, a sure and steadfast anchor of the soul, a hope that enters the inner shrine behind the curtain”; TOB: “Elle est pour nous comme une ancre de l’âme, bien fermement fixée, qui pénètre au-delà du voile.” 몇몇 독역본은 εἰσερχομένην의 선행사로 ἄγκυρα를 상징한다. ELB: “Diese haben wir als einen sicheren und festen Anker der Seele, der in das Innere des Vorhangs hineinreicht”; EIN: “In ihr haben wir einen sicheren und festen Anker der Seele, der hineinreicht in das Innere hinter dem Vorhang.” ἐλπίς와 ἄγκυρα가 모두 여성명사이므로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닻’이라는 개념은 부자연스럽다.

7) 분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점에 있어서 히브리서 11:2에 대한 『새번역』의 해석은 적절하다. 『개역개정』의 “선진들이 이로써(ἐν ταύτῃ)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번역에서 ‘이로써’가 앞 절 전부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 단수 명사 πίστις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새번역』은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는 ἐν ταύτῃ를 다소 과도히 밝힌 것이지만 『개역』의 ‘이로써’보다는 나은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과 같이 옮겼다. 『개역개정』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공동개정』 “사제들도 십분의 일을 받았지만 사제들은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이고, 멜기세덱은 성서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새번역』 “한 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십분의 일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받습니다.”

이 문장의 논리는 매우 심오하고 복잡하다. 만일 표면 그대로 읽으면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이 십일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동개정』이 적절하지만, 유형론적으로 아브라함 및 레위에 근원을 둔 유대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의 방식⁸⁾을 따른 그리스도보다 열등하다는 논법으로 본다면 『새번역』의 번역이 타당할 것이다(참조, 9-10절). 어떤 경우든 이 문제는 우리말의 존대법 때문에 한 쪽을 택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서양 역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제이다.

『새번역』 히브리서 13:18은 명확하던 『표준』역의 주어를 도리어 불분명하게 개정한 예이다. Προσεύχεσθε περὶ ἡμῶν· πειθόμεθα γὰρ ὅτι καλὴν συνείδησιν ἔχομεν, ἐν πᾶσιν καλῶς θέλοντες ἀναστρέφεσθαι. 『표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새번역』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⁹⁾ 이것은 분사 θέλοντες의 주어를 ‘우리’로 파악했던 『표준』역에 비해, 『새번역』은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 여러분’도 주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사구문이 발달하지 않아 주어를 밝혀야 하는 독일어 역본은 모두 ‘wir’를 주어로 명시하였다.¹⁰⁾ ‘저자 일동이 바른 처신을 원하므로 그들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는 것’(‘우리’가 주어일 경우)인지, 아니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바르게 처신하기를 원한다면 저자 일동을 위해 기도하기를 명령하는 것’(‘너희’가 주어일 경우)인지는 전적으로 해석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영역본들은

8) 이 점에서 히브리서 5:6, 10; 6:20; 7:11, 17에 나오는 τάξις를 ‘(멜기세덱의) 반차’나 ‘계통’으로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열에 딸린 제사장으로서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레위지파가 아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전적인 의미를 따라(BDAG, s. v. “manner”)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TOB는 이를 잘 살렸다. “là où est entré pour nous, en précurseur, Jésus, devenu grand prêtre pour l'éternité à la manière de Melkisédeq.”

9) 부사적 분사구문을 이렇게 기능을 밝히지 않고 잘라 번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다룬다.

10) ELB “da wir in allem einen guten Wandel zu führen begehren”; LUT “und wir wollen in allen Dingen ein ordentliches Leben führen”; EIN “weil wir in allem recht zu leben suchen.”

‘*desiring to act honorably in all things*’(RSV), ‘*wishing to act rightly in every respect*’(NAB) 등 분사로 옮김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¹¹⁾ 이렇게 본다면 구조적으로 분사구문을 정확히 옮기기 어려운 우리말이 - 주어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 일정 부분 독일어보다 유리한 대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측면은 매우 예외적인 장점이며 제한된 부분에만 적용 가능하다.

히브리서 4:6은 주어와 술어의 관계를 놓친 경우이다. 『개역개정』에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로 되어 있는데 반해, 『새번역』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로 적는다. 외형상으로 두 번역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개역개정』은 단수동사 ἀπολείπεται의 주어를 복수 대명사 τινάς로 잘못 파악하였다. 곧 ἀπολείπω의 수동태가 대격 목적어와 부정사(accusativus cum infinitivo)를 취할 때 ‘… 하는 일이 남아있다나 ‘…가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를 의미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 따라서 이 부분은 『새번역』이 원문의 구조와 문장성분의 상응관계를 『개역개정』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SV, KJV, LSG 등 대부분의 역본 역시 이 이해와 일치한다.

전술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말은 헬라어에 발달한 상응관계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나, 최소한 원문 안에 다른 상응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번역문이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략되는 주어 등 문장성분을 분명히 살릴 필요가 있고, 원문에는 없지만 분명한 이해를 위해서 요구된다면 번역문에 그 내용을 더 밝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부사적 분사구문과 주절의 관계 표현

이른바 ‘학교문법’은 헬라어 분사의 용법으로 ‘한정적 용법’(attributive participle), ‘서술적 용법’(predicate participle), ‘명사적 용법’(substantival participle)을 제시한다.¹³⁾ 이 중 한정적 용법이나 명사적 용법이 서양의 관계적이나 우리말의 관형절로 수월하게 표현되는 반면, 서술적 용법, 그 중에서도 부

11) 참조, DRB “Priez pour nous, car nous croyons que nous avons une bonne conscience, *désirant* de nous bien conduire en toutes choses.” LSG “Priez pour nous; car nous croyons avoir une bonne conscience, *voulant* en toutes choses nous bien conduire.”

12) BDAG s. v. “*it is reserved or certain*”.

13) 참조,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6), 617-620.

사적으로 사용된 분사구문(dependent verbal participles)은 번역시 항상 주절과의 관계를 감안해서 번역해야 한다. ‘분사 연결구문’(participium conjunctum)이나 ‘절대 속격구문’(genitivus absolutus)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가 주절의 특정 문장성분을 같은 격과 성으로 부연설명하는 분사를 말한다면 후자는 주절의 문장성분과 상관없는 분사가 속격으로 등장하는 구문을 가리킨다.¹⁴⁾ 문제는 번역시 이 구문과 주절의 관계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번역된다기보다는 대부분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단순 ‘번역’을 넘어선 ‘해석’이 가미된다. 예를 들어보자.

히브리서 6:10 τῆς ἀγάπης ἧς ἐνεδείξασθε εἰς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διακονήσαντες τοῖς ἀγίοις καὶ διακονοῦντες에서 분사 διακονήσαντες와 διακονοῦντες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이유>: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기셨고 섬기시**므로**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NIV, RSV 등에 해당); <도구>: “여러분께서 성도들을 섬기셨고 섬기심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ELB, EIN, NAB 등에 해당); <시간>: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기셨고 섬기실 **때**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Weiß 등에 해당).¹⁵⁾ 또 번역어에 분사가 발달했을 경우 그대로 분사를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정하지 않고 판단을 독자들에게 맡기는 경우이다(불어의 DRB, LSG 등에 해당).¹⁶⁾ 이처럼 부사적 분사구문은 문맥에 따라, 또 번역가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달리 번역될 수 있다.

히브리서 9:15 역시 다양하게 번역된다. θανάτου γενομένου를 『새번역』은 “(사람들을 구속¹⁷⁾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로 번역한다. 그러나 『공동개정』

1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문법서를 참조하라 BDR § 417-425;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622-655.

15) H.-F. Weiß, *Heb.*, 330.

16) 참조, TOB “il ne peut oublier votre activité et l’amour que vous avez montré à l’égard de son nom en vous mettant au service des saints dans le passé, et encore dans le présent.”

17) 『새번역』이 일종의 ‘개악’을 범한 사례로는 ἀπολύτρωσις의 처리문제를 꼽고 싶다. 『개역』이 ‘구속’(救贖)으로 옮겼던 것을 『개역개정』과 『표준』은 공히 ‘속량’(贖良)으로 교체했다(눅 21:28; 롬 3:24; 8:23; 히 9:15). 아마도 ‘구급’을 나타내는 拘束과 혼동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새번역』은 몇 군데에서 이것을 다시 ‘구원’으로 고쳤는데 젊은 세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개정이다. 필자는 ἀπολύτρωσις의 한역은 ‘대속’(代贖)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속량’이라는 말은 일부러 뜻을 풀어주지 않으면 한자 세대조차도 알기 어려운 용어이다. 둘째, ‘속량’은 ‘몸값을 받고 종을 풀어주어 양민(良民)이 되게 하던 일’(참조, 『민중 국어사전』)을 말하는 반면, ἀπολύτρωσις는 노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전쟁 ‘포로’를 풀어주기 위해 보석금을 지급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참조, K. Kertelge, “ἀπολύτρωσις” EDNT I, 138. 따라서 ‘속량’보다는 ‘대속’이 이해하기도 쉽고 더 정확한 용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번역』의 ‘구원’은 원문과 전혀 상관없는 역어로

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로, 『개역개정』은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로 처리함으로써 원문의 절대 속격구문은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NIV와 RSV 등은 이를 잘 살렸다.

문제는 이 분사구문이 학교문법에서 규정된 대로 번역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대안은 두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부사적 분사를 한정적 분사로 번역하는 것이다. 둘째, 분사구문의 ‘기능’ 및 주절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and 등으로 연결시켜 정동사처럼 번역하는 경우이다. 히브리서 6:10를 번역한 우리 역본은 분사의 논리적 관계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새번역』 “...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양자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분사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히 두 번째 경우에 가깝다.

반면 많은 서구 역본들은 첫 번째 ‘한정적 용법’을 택한다. NJB “the love that you have for his name or the services you have done, and are still doing, for the holy people of God.” MNT “Denn nicht ungerecht (ist) Gott, zu vergessen euer Werk und die Liebe, die ihr aufwieset für seinen Namen, die ihr dientet den Heiligen und dient.” 이 중 독어 역본 중 가장 기계적 문자역인 뮌헨신약성서 (Münchener Neues Testament)가 이렇게 부사적 분사를 한정적 쓰임새로 전용했다는 사실은 이채롭다.

후술하겠지만, 우리 역본이 분사를 처리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견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말에 분사가 존재하지 않는데 기인하는 바 크다. 그렇다면 분사의 쓰임새가 상이한 서양어들이 이를 취급하는 방식은 눈여겨 볼 구석이 있을 것이다. 가령 영어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분사구문은 독일어에서 현저히 위축된다. 독일어에도 분사가 있으나 실제 문장 구성에서 부사적인 용법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될 뿐이다.¹⁸⁾ 반면 불어는 더욱 발달한 분사 구문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한다.¹⁹⁾ 이렇게 각 번역어에서 해당 문법사항이 상이한 빈도

서, 사회·경제적인 용어인 ἀπολύτρωσις의 함의를 표현하지 못한다. 『새번역』은 정작 엡 1:7; 4:30; 골 1:14에서는 ‘구속’을, 롬 8:23에서는 『표준』의 ‘속량’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8) 독일어 분사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G. Helbig and J. Buscha, *Deutsche Grammatik* (Berlin u. a.: Langenscheidt, 2001), 585이하. 이에 따르면 독일인은 단순 분사로 부대 상황을 표현하지 않고, 대체로 부사절(indem... 등)을 통해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즐긴다.

19) 불어의 분사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 W. Wagner and J. Pinchon, *Grammaire du Français classique et moderne* (Paris: Librairie Hachette, 1962), 318-323.

로 사용된다면 이들이 성서번역에 있어 분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히브리서 6:1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에서 DRB, LSG, NEG, FBJ 등의 불어 역본은 모두 동일한 분사 ‘lassant’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KJV, ASV 등 좀 더 오래된 번역은 분사를, NIV, NRSV, NAB 등 근래의 번역은 ἀφέντες²⁰⁾를 청유형 정동사로 옮긴다. 그러나 독일어 역본의 경우 극단적인 문자역 MNT를 제외하면 모두 정동사를 사용하여 번역한다. 각 언어에 얼마나 분사가 즐겨 사용되느냐의 정도가 성서 번역에서도 드러나는 실례라 하겠다.

위의 사례는 분사가 없는 우리말로 분사를 번역하는 작업이 매우 까다로움을 시사한다. 히브리서 11:13을 보자. Κατὰ πίστιν ἀπέθαιον οὗτοι πάντες, μὴ λαβόντες τὰς ἐπαγγελίας ἀλλὰ πόρωθεν αὐτὰς ἰδόντες καὶ ἀσπασάμενοι καὶ ὁμολογήσαντες ὅτι ξένοι καὶ παρεπίδημοὶ εἰσιν ἐπὶ τῆς γῆς. 국역성서 중 그 어떤 역본도 위의 네 가지 분사와 본동사의 관계를 밝혀 번역한 예는 없다 『새번역』은 양자를 단절시켜 옮긴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공동』도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역개정』은 주절과 분사구문을 대등한 문장으로 연결시킨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원문의 주절과 분사구를 단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상들 모두가 믿음으로 죽음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미리보고 환영 및 증언을 함. 11:13 번역의 핵심인 바㉠와 ㉡의 논리적 관계는 우리 번역본에서 전혀 표현되지 않는 셈이다(비교 RSV, TOB).²¹⁾ 우리말이 서양어보다 장문을 만들기 어려운 탓도 있다.²²⁾

20) ἀφέντες (τὸν τῆς ἀρχῆς τοῦ Χριστοῦ λόγον)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개역개정』)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새번역』)로 옮긴 것은 적절치 않은 번역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처음 가르침’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통해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식과 속죄에 나아갈 것을 권고하는 것이므로(참조, 2:3), ‘버리다’나 ‘제쳐놓다’는 번역은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공동개정』의 “넘어서서”가 가장 원의에 가깝다.

21) 이 문제는 구문 자체의 난해함보다는 우리말의 특성에서 야기된 어려움이다. 가령 히브리서 5:1는 Πᾶς γὰρ ἀρχιερεὺς ἐξ ἀνθρώπων λαμβανόμενος로 시작되는데, LUT, ELB, RSV, ASV 등 서양 역본은 ‘denn’이나 ‘for’를 문두에 내세움으로써 해당 구절의 목적이 원인규명에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한역본 중 그 어느 것도 이 의미를 살린 것은 없다. 접속사 γάρ의 뜻을 우리 역본에서 부각시키기는 지극히 어렵다. 영어의 ‘for’, 독일어의 ‘denn’ 등은 단독으로 원인을 나타내

그렇다면 부사적 분사를 형용사적/ 한정적 분사로 전용하거나 등위 접속사를 통해 정동사로 풀이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얼마나 정당한가? 물론 학교문법은 동사적 용법의 분사(dependent verbal participle)를 옮길 때 ‘and’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여, 정동사처럼 주절에 병렬(coordination, Beiordnung)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²³⁾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성서번역에 있어서 이 방법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인다. 분사를 정동사로 번역하는 정당성은 두가지 구문론적 측면에서 발견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신약성서에서 드물게 사용되지만, 분사와 부정사가 단독으로 정동사처럼 쓰이는 예가 있다.²⁴⁾ 둘째, 보다 실질적인 이유로, 길고 복잡한 분사구문의 논리적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²⁵⁾ 당연히 우리말에는 이 난점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한정적 분사와 서술적 분사는 구문론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 그리스어 문법서 중 가장 방대하고 권위있는 책 중 하나인 Kühner/Gerth는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이 분사[= 부사적 분사]는 결코 관사와 명사 사이에 놓이거나 관사와 함께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관사없이 명사를 받거나 그 앞에 놓임으로써, 본래 한정적 분사나 형용사와는 구분된다.”²⁶⁾ 이 점은 번역가가 원문을 ‘이해’한 것과 ‘번역’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는 점을 인지할 때 납득할 수 있다. 즉 번역가가 원문의 문법적 형태를 정확하게 받아들여 이해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번역문에 그대로 반영시킬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바로 분사

는 문장을 이끌 수 있지만 우리 구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김창락,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5 (1999), 57-79를 참조하라.

22) 우리말은 한 문장 안에 여러 수식구나 절을 동시에 사용하면 그 의미 파악이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로 장문을 번역할 때 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독립된 문장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5:2 역시 분사구문 *μετριπαθεῖν δυνάμενος*로 앞 절과 연결되어 있지만 국역성서 어느 것도 2절을 부대상황이나 이유의 뜻으로 밝힌 예는 없다

23) 가령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로 쓰이는 책 중에서 박창건 박익수,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437 이하.; W. W. Goodwin, *Greek Grammar*, 336. 이 점은 라틴어 학교문법과도 분명한 유비관계가 있다 G. Kurz, *Studium Latinum*, Teil 2 (Bamberg: C. C. Buchners Verlag, ²1993), 111.

24) 이에 대해서 J. H. Moulton,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vol. 1, Prolegomena (Edinburgh: T & T Clark, ³1957), 222-225.

25) 히브리서 12:2이 이에 해당한다. 12:2는 본동사가 없는 분사구문으로서 1절의 *τρέχουμεν*에 종속되지만 이를 살려 번역한 예를 찾지 못한다 한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받아보자”는 『개역개정』의 ἀρχηγός는 『새번역』처럼 ‘창시자’로 옮기는 것이 옳다. 더욱이 같은 『개역개정』의 히브리서 2:10는 ‘창시자’로 적절히 번역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참조, 행 3:15; 5:31). 히브리서 저자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는 참 믿음의 본을 ‘최초로 제시한 분’이며 대속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한 믿음의 ‘완주자’이기도 하다(참조, 히 12:3).

26) Kühner and Gerth, *Griechische Grammatik* 2, Teil 2 Bd., 77, 또한 47도 보라.

구문이 이에 해당한다 환언하면, 부사적으로 사용된 분사를 ‘그리고’로 연결시켜 정동사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번역’의 한 방법일 뿐 헬라어 분사에 본래적으로 내재된 기능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사구문을 번역할 때 그 문법적 형태를 살리는 길은 없는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²⁷⁾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급히 오역 운운할 수는 없지만, 분사구문의 문법적 형태를 살려도 한정적 용법으로 처리한 것과 사실상 의미 차이가 없거나, 자연스러운 우리말을 위해서 그리할 수밖에 없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본다

4. 헬라어 분사의 시상 처리 문제

헬라어 동사에는 일반 시제 외에도 일어난 동작의 ‘형태’까지도 함께 표현된다. 이 ‘시상’은 서양어로도 언제나 표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어 대 단어(word for word)로 옮길 수 없고 구조적으로 다른 표현방식이 요구될 때가 많다. 가령 진행형이 없는 독일어에서 ἀποθνήσκειν을 정확히 옮기려면 “im Sterben liegen”이라 하고 τεθνησκέναι는 “tot sein”라고 해야 할 것이다.²⁸⁾ 이러한 시상을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어색함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헬라어의 시상은 사실상 그 시제만 취하고 양태는 포기해야 하는 내용인가? 실제로 시상이 번역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말에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면 마땅히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예들은 이를 예증한다

시상을 눈여겨 살피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오역을 하게 된 예가 히브리서 12:28에서 발견된다. Διὸ βασιλείαν ἀσάλευτον παραλαμβάνοντες ἔχωμεν χάριν라는 원문을 『개역개정』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로 처리한다. 그러나 현재분사 παραλαμβάνοντες의 시상은 선적인 측면을 나타내므로 ‘받았은즉’이 아니라 ‘받고 있으므로’나 ‘받으니’로 옮기는 것이 타

27) 절대속격구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사례로는 로마서2:15를 들 수 있다. συμπαρευρούσης αὐτῶν τῆς συνειδήσεως καὶ μεταξύ ἀλλήλων τῶν λογισμῶν κατηγορούντων ἢ καὶ ἀπολογουμένων 필자가 살피본 어떤 서양 역본에서도 이 절대 속격구문의 의미를 밝혔던 경우는 없었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고 그들의 생각이 서로 싸우고 변명할 때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율법의 행위를 내세운다.” 이에 대해서 줄고, “양심과 율법의 기능- 바울 구원론에 있어서 판단근거의 문제”, 『신학논단』 49 (2007), 42-45.

28) 예문은 E. Bornemann and E. Risch, *Griechische Grammatik* (Frankfurt a. M.: Diesterweg, 1978), 214 이하에서 골랐음.

당하다.²⁹⁾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당면한 배교의 문제를 강력히 경고하기 위하여, 원시 기독교 특유의 ‘실현된 종말론’을 탈색시키고 있으므로(참조, 히 6:4-8; 10:26-31), παραλαμβάνοντες의 시상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12:29의 논조와도 일맥상통한다. 바로 ‘구원’의 영속성에 관한 한 종말론을 회색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히브리서 2:4의 συνεπιμαρτυροῦντος τοῦ θεοῦ 역시 현존하는 국역성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증언하여 주셨다’고 옮김으로써, 3절과 대비되는 바 하나님의 증언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한 4절의 의도는 문혀버리고 말았다.³⁰⁾

히브리서 2:11에서 『새번역』은 ἀγιάζων과 ἀγιαζόμενοι의 시상을 일치시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라 번역했다. 『개역개정』과 『공동』이 후자를 각각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및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 적은 것보다 진일보한 번역이라 할 만하다³¹⁾ 그러나 4:13 τετραηλισμένα의 완료적 의미는 『새번역』 외에 국역성서 어느 것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분사의 처리는 사소한 번역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세속 권력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원시 기독교의 확신을 드러내는 구절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5:2의 πλανωμένους를 『개역』이 ‘미혹된 자’로 옮긴데 반해 『새번역』은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로 번역했다. 이 문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묘사하는 문제 상황이 독자들의 현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가리키는 것인지 암시하는 것이므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³²⁾ 연장선상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히브리서 10:26의 ἁμαρτανόντων 번역이다. 주석적으로 히브리서 독자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범한 죄 행위라기보다 배교하도록 유혹

29) 『개역개정』이 ‘은혜를 받자’를 본문으로 택하고 난외주에 ‘감사드리자’를 추가했지만, ‘나라를 받았으니’로 이해할 경우 ἔχωμεν χάριν의 자연스러운 독법은 ‘감사드리자’일 뿐이다.

30) 헬라이어 분사의 시제가 본동사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윌리스(D. B. Wallace)는 분사의 시상이 주절의 동사가 갖는 시제에 선후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623-627; J. W. Wenham, *The Elements of New Testament Gree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52 이하. 가령 부정과거 분사는 주절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내거나, 현재분사는 본동사와 같은 시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 서양의 성서 번역본에서 흔히 발견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법적으로 헬라이어 분사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번역 과정 중 내적 논리를 밝히다 보니 필요하게 된 사항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 보네만(E. Bornemann)의 지적은 매우 정확하다. E. Bornemann and E. Risch, *Griechische Grammatik*, 226-228, 특히 228.

31) 시상과 관련하여 『새번역』은 『개역개정』보다 정확하다는 점은 히브리서 4:3의 πιστεύσαντες, 5:1의 λαμβάνομενος나 5:4의 καλούμενος에서도 확인된다. 『개역개정』이 시상을 놓친 반면 『새번역』은 정확히 표현했다.

32) 참조, H.-F. Weiß, *Heb*, 304.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히 3:13; 12:1, 4). 이 점은 ASV: “If we sin willfully”, RSV: “If we sin deliberately”, EIN: “Denn wenn wir vorsätzlich sündigen” 등 서양역본에서도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인데 『새번역』은 이를 과감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이라고 옮겼다. 이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에 대한 단서를 포착한 탁월한 번역이라고 하겠다.³³⁾

이보다 중요도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22의 τελευτών을 『개역』이 ‘임종시에’로 번역하고 『공동』이 ‘죽을 때’로 처리하는 데 반해, 『표준』은 ‘죽으면서’로 더욱 정확하게 옮긴다. 전술한 예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국역성서에서 헬라어의 시상을 기계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고 우리말에서 어색하지 않다면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어도 미완료 및 현재형을 옮기는 데 있어서 진행형이 따로 없는 독일어보다는 우리말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헬라어의 시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자연스러운 우리말을 용인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이것은 정확한 원문과 자연스러운 역문 사이에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번역원칙을 못박을 수 없다면, 선택에는 나름대로의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시상을 무리없이 표현할 수 있는 대목에서는 이를 반영할 것이며, 신학적으로 중요한 측면을 드러낸다면 다소간의 부자연스러움을 감수해서라도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분사의 번역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번역’이라 일컫는 『새번역』이, ‘문자역’에 가깝다는 『개역개정』보다 까다로운 분사의 번역에 있어 정확한 부분이 많았다 원문의 문법적 형태를 존중하면서도 독자의 이해를 돕는 번역이 축사적 번역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음을 예시하는 부분이다. 둘째, 다른 번역의 제문제에도 해당되는 점이겠으나, 분사의 ‘번역’에 있어서는 더욱 ‘해석’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해석이 배제된 번역이 존재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사 연결구문은 최대한 주절과의 관계를 밝혀 옮기는 것이 요구되나

33) 비교 『개역개정』 “우리가 … 짐짓 죄를 범한 즉”, 『공동』 “우리가 … 진리를 깨닫고도 짐짓 죄를 짓는다면”, 『표준』 “우리가 … 일부러 죄를 지으면”.

실제 번역에 있어서 이 기본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대목에서는 매끄러운 역어를 위하여 원문의 문법적 형태를 희생시킬 수 없다. 물론 이 판단 자체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서번역가에게 있어 ‘동그란 네모’와 같은 모순형용, 곧 ‘정확하고 읽기 좋은 번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매 순간 내려야 하는 판단에 다름 아닐 것이다.

<주요어>(Keywords)

Adverbial Participles, Reference, Logical Relationship to the Main Clause, Aspect of Participles, the ‘(Revised) New Korean Standard Version’.

부사적 분사구문, 상응관계, 주절과의 논리적 관계, 분사의 시상, (표준)새번역.

(투고 일자: 2009. 3. 2, 심사 일자: 2009. 9. 16, 게재 확정 일자: 2009. 9. 16.)

<참고문헌>(References)

- 김중은, “표준새번역 성경 구약번역에 관한 비평적 고찰”, 『구약의 말씀과 현실』,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416-441.
- 김창락,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5 (1999), 57-79.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부 추진위원회 간 『소위 표준 새번역 성경전서의 실제』, 서울: 총회신학부, 1993.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 박창건, 박익수, 『신약성서 헬라어 문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유은걸, “양심과 율법의 기능- 바울 구원론에 있어서 판단근거의 문제”, 『신학논단』 49 (2007), 31-54.
-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6-122.
- Blaß, F., Debrunner, A. and Rehkopf, F.,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¹⁷1990.
- Bornemann, E. and Risch, E., *Griechische Grammatik*, Frankfurt a. M.: Diesterweg, ²1978.
- Goodwin, W. W., *A Greek Grammar*, London: St Martin's Press, 1981[1894].
- Gräßer, E., *An die Hebräer*, 3 Bde, EKK XVII, Zürich/ Neukirchen-Vluyn: Benziger/ Neukircher, 1990, 1993, 1997.
- Helbig, G. and Buscha, J., *Deutsche Grammatik*, Berlin u. a.: Langenscheidt, 2001.
- Kertelge, K., “ἀπολύτρωσις”, *EDNT* I, 138-140.
- Kühner, R. and Gerth, B., *Ausführliche Grammatik der Griechischen Sprache*, Zweiter Teil: Satzlehre 2 Bde, Hannover: Hahnsche Buchhandlung, 1898, 1904.
- Kurz, G., *Studium Latinum*, Teil 2, Bamberg: C. C. Buchners Verlag, ²1993.
- Moulton, J. H., *A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vol. 1, Prolegomena, Edinburgh: T & T Clark, ³1957.
- Smyth, H. W., *Greek Grammar*, G. M. Messing,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1956].
- Wagner, R. W. and Pinchon, J., *Grammaire du Français classique et moderne*, Paris: Librairie Hachette, 1962.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6.
- Weiß, H.-F., *Der Brief an die Hebräer*, KEK XIII, Göttingen: V & R, 1991.

<Abstract>

**Korean Translation of Participles in the Greek Bible:
With special Focus on their usages in Hebrews**

Dr. Eun-Geol Lyu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problems which arise in translating participles of the Greek Bible into Korean. Korean, which is sometimes said to be an inappropriate language to render biblical texts with, has indeed difficulties in translating Greek participles.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Korean has no participle syntactically, but has also to do with the fact that Greek participles themselves do not leave a single possible translation. A bible translator can come up with various interpretations, depending upon the context and his own theology.

Unlike the Korean language, in which one can often find no clear references among words involved, Greek offers gender, number, and case so that a participle refers clearly to an element in the main clause. We need to take the references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make a proper translation. A close survey of translations in the text of Hebrews leads us to assume that the Korean bibles miss often references, logical relationships, and aspects of participles.

Needless to say,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ich the rule above cannot be applied to. For we have to consider the stylistic aspect in the Korean translations. Although adverbial participles are frequently rendered through attributive clauses and coordinated with a copula such as 'and', one should restrict this to the cases where it is otherwise inevitable. Our discussion compels us to conclude that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criticized by many for its 'free' translation, reflects more accurately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participles tha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does.